

지역 소식통

부안군, 예비군 육성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육군 참모총장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육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오혁재 제35사단장이 군을 방문해 전달했다.

군은 지역 방위의 핵심 자원인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훈련 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군은 예비군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물자공급 및 예비군 첨단 과학화 훈련 환경을 위해 힘썼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소통해 예비군 육성 및 지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오는 31일까지

정읍시가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받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7%에서 1.26%로 낮아져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정읍=김대환 기자

황토현전적 전승지 위상 강화

정읍시,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진행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황토현전적 한 공간 활용 설계 등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최대로 승리한 황토현전적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합쳐져 전승지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황토현전적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활용 및 보존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보고회는 용역기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표 이후, 황토현전적과 기념공원의 공간 재구성 및 연계 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황토현전적은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최대로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지만, 승리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기념시설이 아닌 유교식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기존 시설이 노후돼 본래 기능이 상실되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황토현전적의 철저한 현황조사와 국내·외 사적지 보존관리의 성공 사례 분석 등을 진행했다.

특히 황토현전적의 단기(2년)·중기(5년)·장기(10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전적지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문화콘텐츠 자원을 확보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황토현전적이 지닌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교식 추모 공간 기능을 탈피해 전승지로서의 혁명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요 내용은 △'불멸~바람길(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주변 환경정비로 군상의 전면 공간 확보해 시·공간적 인자성 개선 △과거 지형, 침엽수림 복원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기존 건축물 활용 가능성 여부 조사 후 철거·이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황토현전적과 기념공원 동선을 재정비해 두 개로 나눠진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황토현전적이 전승지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동학농민 최초·최대 승전지임을 전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동학농민혁명 주요 핵심 유적지를 빠르게 정비해 혁명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출산지원 사업 신설·확대 운영

부안군보건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부안군보건소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 사업을 신설·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부안군보건소의 달라진 모자보건 사업 안내에 따르면 올해 출산 산모부터는 산후조리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신규로 실시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비용이 아니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료, 헬스·요가 등 운동비, 산모 영양제 구입비, 산후조리 물품 구입비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 등 현금성 출산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확대되었는데, 출생아 모두 동일하게 200만원씩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이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출생축하금의 경우 전년도까진 출생아와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아와 부모 중 1명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분할지급을 받고있는 대상자들에게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직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가 달랐던 부안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안군보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난임 시술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난임 진단비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도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 기준 소득 초과로 인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올해부터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안군에서 한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는 평균 1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년도 부안군 출생아 중 8%를 차지하는 숫자로 출생아 한명 한명이 소중한 부안군의 입장에서 난임부부 지원은 부안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더 이상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로 보고 관내 난임부부들의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갯벌생태관 리모델링... 8일 재개관

체험·힐링·휴식 공간 구성

부안군이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위치한 갯벌생태관을 갯벌생태계 체험 및 힐링·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오는 8일 재개관 한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갯벌생태관은 '구불구불', '살랑살랑', '다각다각', '펼쩍펼쩍', '둥글둥글', '쏘옥쏘옥' 등 6가지 코너로 해양보호 생물인 흰이빨갯갯지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보호받는 흰발농게 등 각 코너마다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갯벌생물을 모티브로 했다.

갯벌생태관 1층은 생태전시실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실로 조성했으며 2



층은 체험실과 홍보영상실, 정원전망대가 있다. 갯벌생태관은 전북도 지방정원으로

등락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위치해 있어 산책과 수상레저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갯벌생태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운영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로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만들기 체험은 현장문의 및 전화문의(☎ 063-580-3171·단체인 경우)가 필요하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홈페이지(www.buan.go.kr/jul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인식하고 갯벌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공약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

고창군 심덕섭군수가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실현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맞을 올렸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주요업무 보고회가 진행된다.

실·관·과·소별 올해 추진전략, 77개의 핵심관리사업과 120개 주요 업무

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올해 고창군 주요 핵심관리사업은 △예산 1조시대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노을대교 건설 및 연결도로망 확장·정비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첨단ESG 기업 유치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추진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다.

고창군은 주요 핵심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업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1분기 중 외부위원 30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개최해 공약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4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고창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고창군, 지역·국가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

고창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장철구 목사) 주최로 열렸다.

4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고창군 간부 공무원, 고창군 관내 교회 목사와 신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기원 목사가 "고창군 발전과 안보를 위하여", 서종완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

여"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창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여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고창군 기독교연합회 장철구 목사는 "고창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고창군민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